

<Session II>

(事例發表)

## 에코트로닉스사의 日本 投資事例

成 美 淑

Ecotronix(株) 社長

## 에코트로닉스사의 일본 투자사례

저는 에코트로닉스 주식회사 사장 성미숙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를 한국 서울특별시에 두고 충북 진천군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일본기업의 서울연락사무소가 1991년 현지법인화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당초는 상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외주를 주던 제조부문을 자사에 편입시켜 품질, 납기, 가격 등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장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자본금은 106,300만원, 사원 70명, 연간매출액은 200억원입니다. 공장은 대지 3,500평에 각 500평의 제1공장, 제2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생산품목은 수탁생산품이므로 전량 일본기업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2003년 당시, 수출규모에 걸맞는 내수개척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여 신규사업을 창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로서 일본에서 공동개발---진천공장 생산---한국 및 일본 기업에의 판매를 목표로 일본 거래처와 상의하여 가와사키(川崎)시 아시아 기업가(起業家)마을 추진기구를 소개받아 아시아 기업가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똑같은데다 가와사키시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입주 제1호가 될 수 있도록 경제국과 상담하여 2003년 11월 30일 베트남 기업가와 당사 일본개발부문이 입주했습니다.

아시아 기업가마을에서 2005년에 휴대전화용 2메가 오토포커스 카메라를 개발했고, 2006년에 일본 지상파 휴대이동방송 표준인 원세그(1seg) 수신용 멀티미디어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현지법인 에코트로저팬(자본금 300만엔)을 설립했습니다. 2007년 어안렌즈(fish-eye lens)가 부착된 DVR 보안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가와사키시의 지원을 받는 3년간이 이달 말로 만료되어 졸업하게 됩니다. 많은 개발을 했습니다만, 급격한 기술혁신 때문에 우위성이 있는 상품개발에는 아직 역부족이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시아 기업가마을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 가와사키시에 있는 가나가와(神奈川) 사이언스파크(KSP)에서 우수한 환경기술분야를 연구하여 한국에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cotronix Corp

# 에코트로닉스(株)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4-6 (한영빌딩 5층)

전화 : (02)449-6491 FAX : (02)449-6461

공장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826 문백 전기전자농공단지 6블록

전화 : (043)534-6491 FAX : (043)534-6492

ECO JAPAN : 일본 가나가와縣 가와사끼市 가와사끼區 미나미와타리다町 1-1 京浜빌딩 2층

전화 : (81)044-328-6113 FAX : (81)044-322-2355

URL : <http://www.ecotro.co.kr>



Ecotronix Corp

## 목 차

1. 대표이사 사장 인사말

2. 사훈 · 경영이념

3. 회사개요

4. 회사연혁

5. 조직도

6. 사업내용

7. Production Process

8. 제조라인

9. 주요 거래선



Ecotronix Corp

### 대표이사 사장 인사말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1991년 설립 이래 일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기·전자 및 기구부품 등의 수출을 통해 무역상사로서의 꾸준한 발전을 도모하며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외투법인 무역상사 업무의 기반 위에, 전자 제품 위탁 생산(EMS) 전문기업으로 사업 확대를 위하여 2000년도에 충청북도 진천에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선박용기기(어군탐지기·선박용레이다·선박 자동식별 시스템)의 EMS를 개시하였습니다. 해외를 중심으로 EMS 사업을 실시 및 확대하고 있으며 상사 사업에도 기술 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Distributor로써 무역상사와 제조업의 일체화를 이룩하였습니다.

2007년부터는 신공장의 증설과 더불어 경영 환경의 시스템화를 구축하고, 기존의 제품들도 끊임없이 변화되는 환경과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은 물론 설계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일괄체제를 더욱 공고히하여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제품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하여서는 언제나 아낌없는 최선의 노력으로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고객여러분의 작은 소리라도 소중히 경청하고 겸허히 수용하여 제품 하나하나에 모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코트로닉스를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대 표 이 사 성 미 속



Ecotronix Corp

사훈

자 유

자 립

Partnership

용 기

경영이념

一. 창조력의 발휘

一. 환경과의 공존

一. 사원의 행복

一. 사회로의 공헌



Ecotronix Co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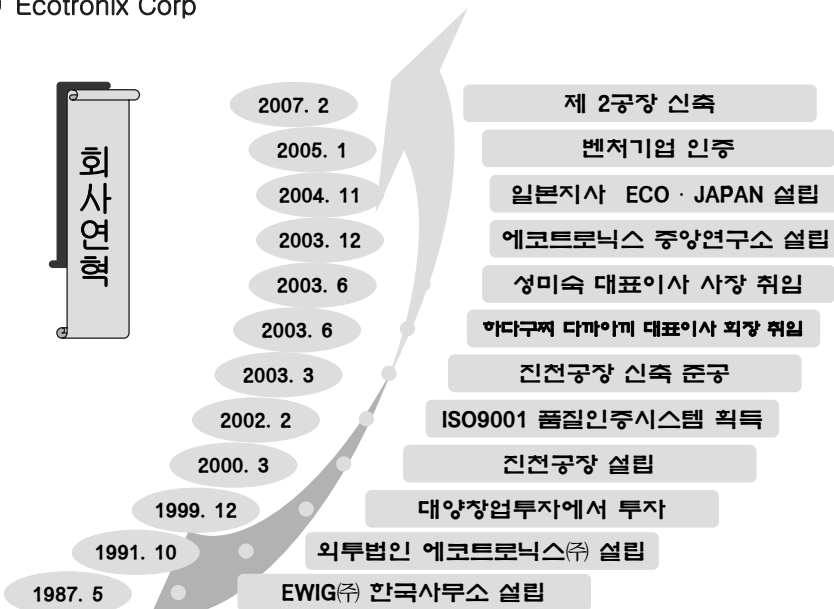
### 회사개요

회 사 명 에코트로닉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회 장 하타구찌 다카야끼  
 대 표 이 사 사 장 성 미 숙  
 업 종 선박용 통신기기 제조 · 판매 / 전기 · 전자부품 판매  
 본 사 서울 송파구 문정동 4-6 한영빌딩 5층  
 공 장 충북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826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6블럭)  
 대지 3,500평 건평 1500평  
 설 립 년 월 1991년 10월 1일  
 자 본 금 10.63억원  
 연 매 출 액 150억원 (2006년 기준), 200억원(2007년 목표)  
 결 산 기 간 6월 1일 ~ 5월 31일  
 사 원 70명 (본사 10명, 공장 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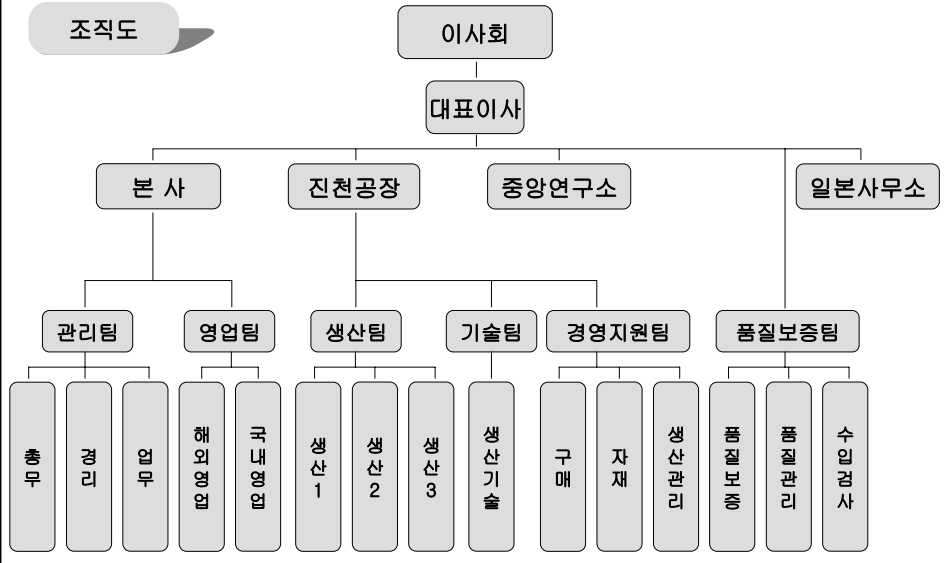


Ecotronix Corp

### 회사연혁



조직도



EMS(위탁생산)사업 01

어군탐지기  
(魚群探知機)

- 어군탐지기는 어업의 효율화와 항해의 안전, 경제적인 항해의 실현을 구현하는 초음파 통신기술의 집약체입니다



EMS(위탁생산)사업 02

레이다  
시스템

- 레이더, GPS항법장치 등 무선통신 장치로의 사업확대
- 선박용 VDR 공동 개발



EMS(위탁생산)사업 03

AIS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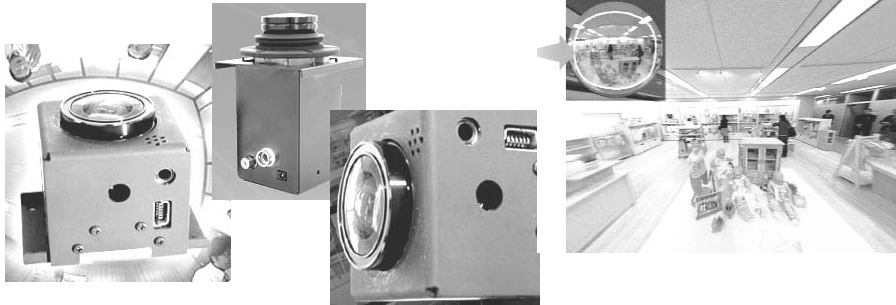
- 선박의 위치나 선속, 진행방향 등의 정보를 VHF전파로 받아들이며, 주변 선박의 동정을 파악하는 장치로 안전한 항해를 서포트합니다.



상사 사업 01

어안렌즈  
카메라 모듈

- 화각이 180도 + 360도의 어안렌즈를 이용한 카메라 모듈
- 300만 화소의 고감도 센서 내장
- 3Cm 사방의 컴팩트함과 USB단자 탑재



상사 사업 02

IT 관련 제품

- GPS 모듈
  - : 고감도, 고속, 소형, 저소비전류를 갖춘 車載向 및 PND용 GPS 모듈 판매
- 1SEG. CHIP
  - : 일본향(ISDB-T) 모바일 TV용 CHIP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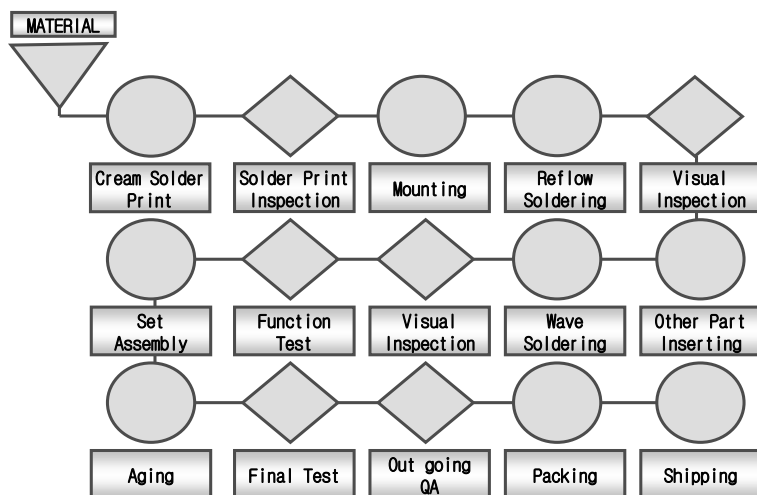
상사 사업 03

OTHERS

• GAS SPRING, 항공관제용 Console,  
히타 판넬, 기구물 등...



Production Process





Ecotronix Corp

### 제조라인 01

PCB위에 표면실장용 부품을 장착하여 납땜하고,  
표면실장된 PCB위에 일반 각종 부품을 삽입하여 납땜.

#### 자재창고



#### SMT



#### 수입



#### 후공정



Ecotronix Corp

### 제조라인 02

각 부품이 조립된 PCB와 기구 부품 등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제작.

#### 자동검사



#### 품질검사



#### 조립



#### 조정



#### 포장





Ecotronix Corp

#### 주요 거래선

- EMS사업 부분  
전량 일본거래선 주문에 의한 위탁생산
- 상사사업 부분  
한국제품을 일본기업에 판매



Ecotronix Corp

**대단히  
감사합니다!**

URL : <http://www.ecotro.co.kr>

## 가와사끼시와 아시아기업존

### ※ 기본

산업재생 · 환경재생 · 도시재생

#### 「아시아起業家村構想」

현재, 아시아 각지에서 가와사끼를 방문하는 기업관계자도 많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잘 살려서 서로에게 메리트가 있는 또한 국제적으로도 공헌할 수 있는 방책으로써 임해부를 무대로 아시아起業家村構想」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 起業 · 국제공헌을 키워드로써 아시아起業家村構想을 추진함에 따라 아시아의 도시와 가와사끼시 사이에 비즈니스나 인적교류, 起業家の 육성을 촉진하여, 비즈니스 찬스의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임해부 입지企業등이 보유한 환경관계 기술의 해외이전등에 의해 국제공헌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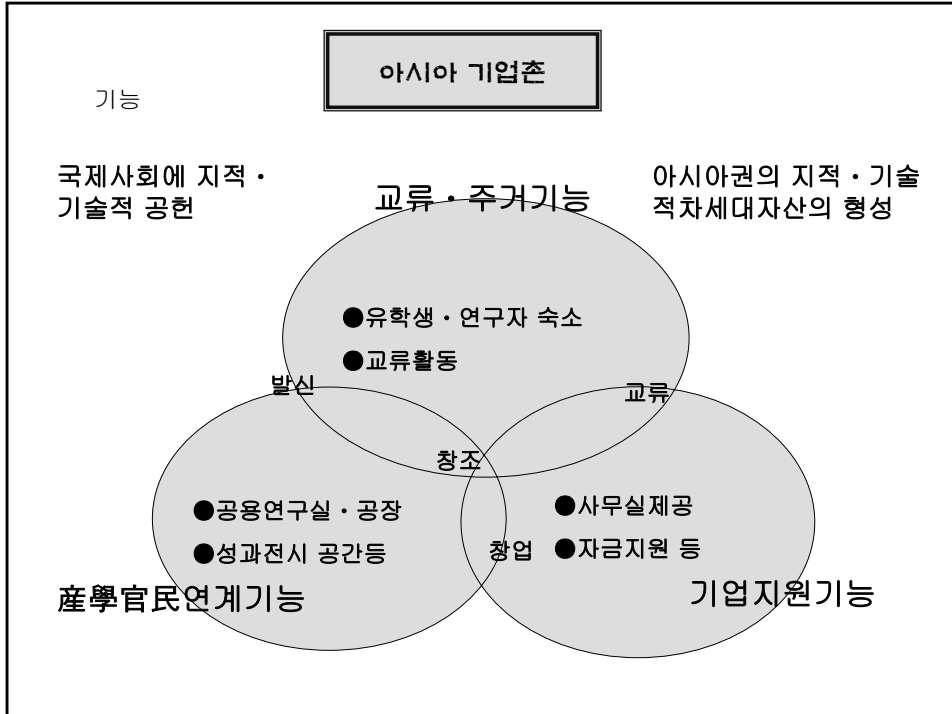
## 아시아 기업존

### ※ 기본이념

- 아시아파워와 지역자산의 거점만들기
  - 아시아 파워를 취합
  - 벤처기업의 창업과 국제적으로 활동할 기업의 입지를 도모
  - 도전정신이 발휘 가능한 환경을 갖춘 산업커뮤니티를 産学官民共同으로 형성

### ※ 특징과 목표

- 아시아파워를 살린 일본
  - 글로벌 · 무한경쟁시대에 아시아권 두뇌연대나 문화, 산업교류에 의한 신사업창출을 활성화
  - 보완, 공동창조로 발전
  - 21세기에 요구되는 경제산업 모델을 목표



### 에코트로닉스의 진출

가와사키시에서는 산업이나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의 파워를 살린 벤처창업과 국제적인 활동을 할 기업의 입지를 생각하여 공동 연구나 산업 커뮤니티를 거점으로써 세계에 공헌할 신산업을 키워가는 「아시아起業家村構想」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즈음하여 아시아起業家村의 거점인 「THINK」(JFE京浜빌딩内)에 한국(에코트로닉스)과 베트남에 기업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 가와사키시 진출시 이점

가와사키 산업 진흥재단과 KSP가 창업지원

비즈니스 지원 교육연수

원스톱서비스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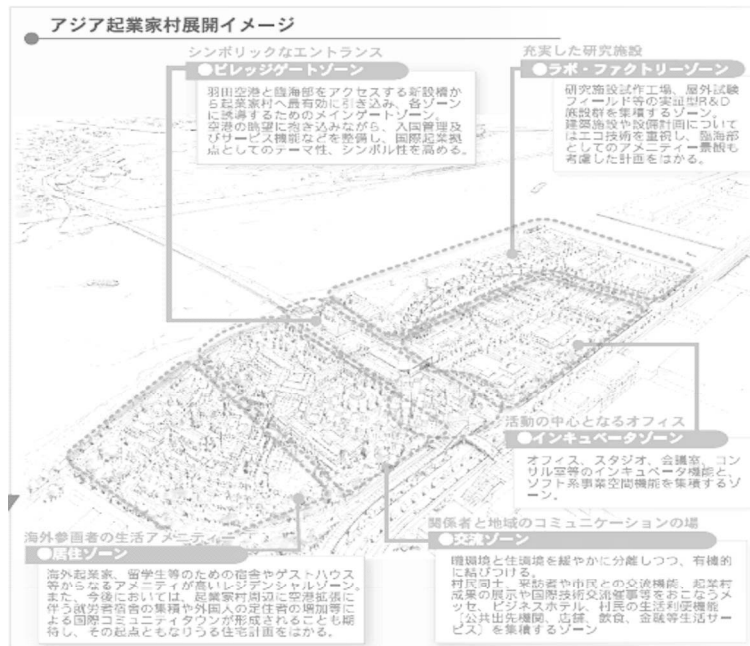
- 언어/습관/커뮤니케이션의 문제해결
- 주거 및 의료기관 소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오피스 진출 지원

- 임대료 경감(1년차 무료, 2년차 50%, 3년차 100%)

각종융자제도 지원

- 진흥자금(최고 한도액 2억엔)
- 소규모 사업자금(최고 한도액 3,500만엔)



<Session Ⅲ>

(主題發表①)

## 韓日企業間 **Win-Win** 協力強化 方案

吳 泰 憲

慶熙**Cyber**大學校 日本學科 教授

# 한일기업간 Win-Win협력강화 방안



2007.11.13

오 태현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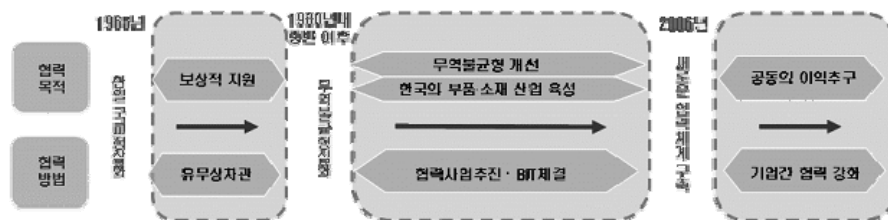
- 01 한일경제협력의 변천과정과 필요성
- 02 한일기업간 협력 발전전략
- 03 한일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정부 및 기업의 역할



- 01 한일경제협력의 변천과정과 필요성
- 02 한일기업간 협력 발전전략
- 03 한일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정부 및 기업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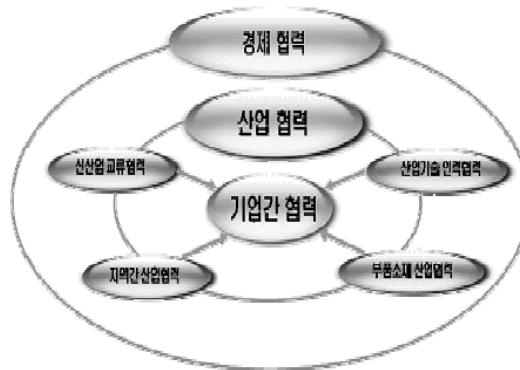
## 한일경제협력 변천과정

-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보상적 차원에서 유무상 차관 유입
- 1980년 중반 이후 한일간의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간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양국간의 협력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옴
- 그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와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협력의 주체는 기업

- 경제협력 및 산업기술협력은 결국 기업이 중심
- 기업간 협력이 추진되고 강화될 수 있는 정책지원
- 협력의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하며 그 협력이 강화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시장 측면에서의 한일 상호 보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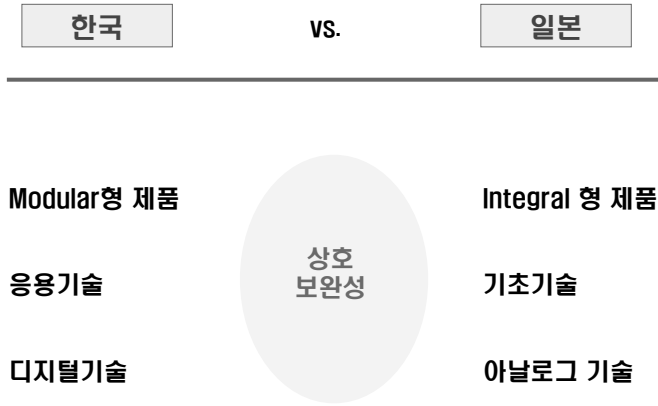
### 시장의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

- 인구(2004년): 1억2,700만 + 4,800만 = 1억7,500만 명
- GDP (2004년): 4조3,290 + 7,220억 = 5조510억 달러

### 신규제품 테스트 시장으로서의 효과

- 한국: 예) IT제품의 테스트 마켓
- 일본: 예) 생활용품제품의 테스트 마켓

## 기업역량 측면에서의 한일 상호 보완성



## 한일기업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과 성공가능성

### 한일기업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

- 한일 양국 시장 진출의 용이성  
한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일본기업의 한국시장 진출
- 자원공유를 통한 투자위험의 감소  
삼성-소니의 LCD 투자
- 신속한 시장진입  
LG전자-히타치의 ODD 사업
- 산업표준의 획득  
VCR의 VHS vs. Beta방식

### 성공적인 제휴를 위한 파트너 조건

- 양립성(Compatibility)  
한일 기업은 상호보완적인  
능력을 보유
- 능력(Capability)  
한일기업은 특화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 몰입(Commitment)  
자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메커니즘 고안

- 01 한일경제협력의 변천과정과 필요성
- 02 한일기업간 협력 발전전략
- 03 한일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정부 및 기업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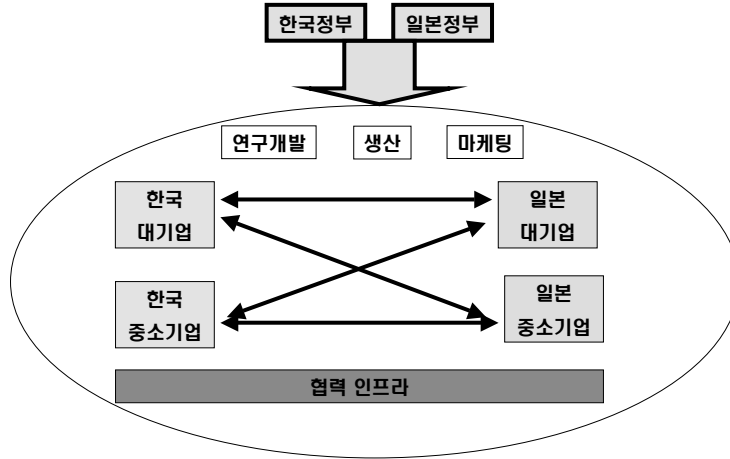
## 한일기업간 협력 발전 전략

- 발전전략의 개요
  - ▶ 한일협력의 기본개념
  - ▶ 한일기업간 협력 지원정책 발전계획의 종합
- 비전과 목표
  - ▶ 비전
  - ▶ 목표
- 전략
  - ▶ 한일 대기업간 협력지원 전략
  - ▶ 한일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지원 전략
  - ▶ 한일 중소기업간 협력지원 전략
  - ▶ 한일 기업간 협력 인프라구축 전략

## 한일협력의 기본개념

### 기업 중심의 한일 협력

- 기업이 협력의 추진체로서 역할
- 정부는 기업들의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



## 한일기업간 협력 발전전략 로드맵

### 발전계획의 종합

- 비전 → 목표 → 전략 → 핵심과제로 구체화된 발전계획

비전	Win-Win 한일 경제공동체				
목표	2010년 한일 무역규모 1000억\$, 무역수지 -100억\$				
전략	한일 대기업간 협력지원 전략	한일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지원 전략	한일 중소기업간 협력지원 전략	한일 기업간 협력 인프라 구축전략	
핵심과제	(연구개발)	대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대기업-중소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중소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인적교류 활성화
	(생산)	대기업간 생산재휴 유도	한일 기업간 계열화 유도	중소기업간 생산재휴 유도	
	(마케팅)	대기업간 공동 해외진출 활성화	유통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결	중소기업간 공동 해외진출 활성화	정보교류 활성화

## 비전

비전: Win-Win 한일 경제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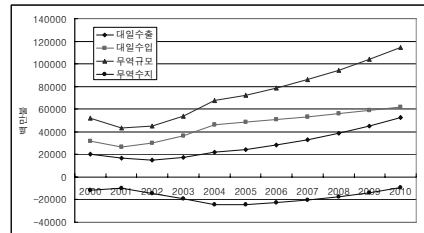
- 부품소재의 대일의존이라는 시각을 탈피
- 대일수출 증가, 해외 공동진출 등 Win-Win의 형태를 다양화

## 목표

목표: 2010년 한일 무역규모 1,000억\$, 무역수지 -100억\$

- 수입증가율보다 높은 수출증가율 달성을 통한 발전
- 일본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통한 무역적자의 감소

	↑ ( \$ )	↑ ( % )	↑ ( \$ )	↑ ( % )	( \$ )	↑ ( \$ )
2000	20,466	29.0	31,828	31.8	52,294	-11,361
2001	16,506	-19.4	26,633	-16.3	43,139	-10,127
2002	15,143	-8.3	29,856	12.1	44,999	-14,713
2003	17,276	14.1	36,313	21.6	53,589	-19,037
2004	21,701	25.6	46,144	27.1	67,845	-24,443
2005	24,027	10.7	48,403	4.9	72,430	-24,376
2006	26,534	10.4	51,926	7.3	78,935	-25,392
2007	32,891	17.0	53,364	5.0	86,255	-20,474
2008	38,482	17.0	56,033	5.0	94,514	-17,551
2009	45,024	17.0	58,834	5.0	103,858	-13,810
2010	52,678	17.0	61,776	5.0	114,454	-9,098



2006년 - 2010년 수출 17%, 수입 5% 증가의 경우 목표 달성 가능

## 전략 1: 한일 대기업간 협력지원 전략

### 기본관점

- 대기업간 협력은 이미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는 보다 활발한 협력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지원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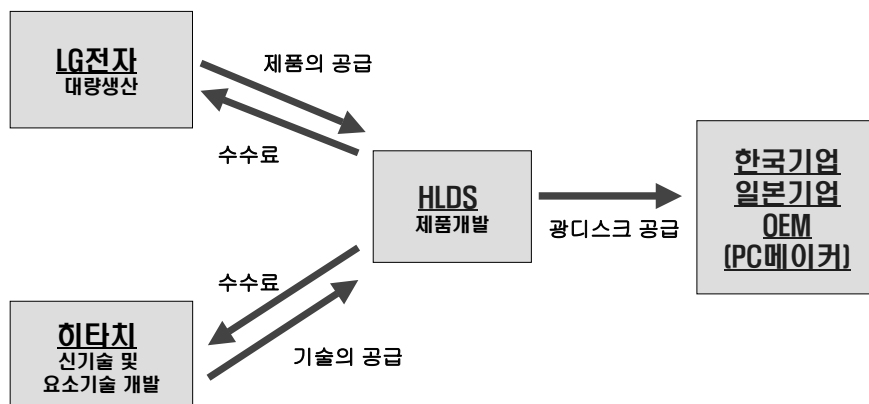
### 협력 사례

- 삼성-하이얼-산요
- 포스코-신일본제철
- LG전자 - 히타치
- 삼성전자-소니
- 삼성전자-스미토모화학

### 기능활동별 핵심과제

- (1) 대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 (2) 대기업간 생산제휴 유도
- (3) 대기업간 공동 해외진출 활성화

## 대기업간 협력 사례: LG전자 - 히타치



## 전략 2: 한일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지원 전략

### 기본관점

- 향후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
- 특히 일본 대기업과 한국 중소기업간의 협력이 유망분야

### 협력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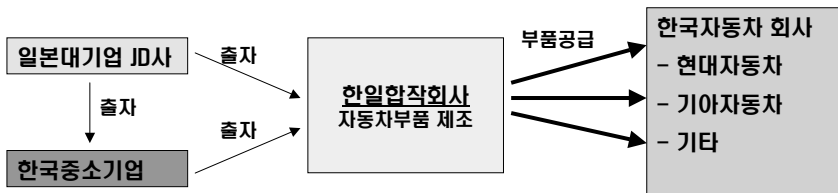
- 일본의 반도체장비회사 - 한국의 중소장비회사
- 일본의 자동차 전장부품 대기업 - 한국의 중소 부품회사 [현 자회사]
- 일본의 전기전자 대기업 - 한국의 중소 부품회사 [현 자회사]
- 일본의 공작기계 대기업 - 한국의 중소 부품회사 [납품]
- 일본의 가전기기 대기업 - 한국의 중소 부품회사 [납품]

### 기능활동별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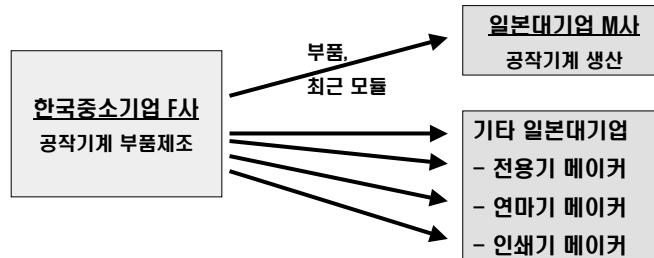
- (1) 대기업-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 (2) 한일 기업간 계열화 유도
- (3) 유통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결

## 한일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 사례

### 일본대기업-한국중소기업: 한국시장 판매



### 일본대기업-한국중소기업 : 일본시장 판매





### 전략 3: 한일 중소기업간 협력지원 전략

#### 기본관점

- 지금까지 협력이 저조한 분야
- 정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야

#### 협력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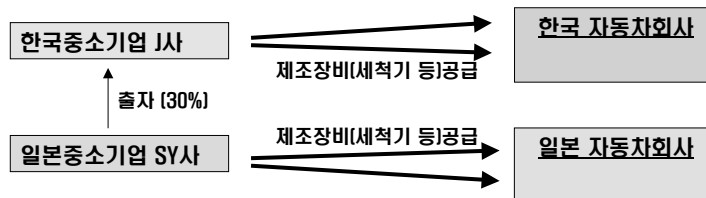
- 선박분야 한국 중소부품기업 - 일본중소부품기업
- 자동차 제조장비 분야 한국 중소장비기업 - 일본중소장비기업

#### 기능활동별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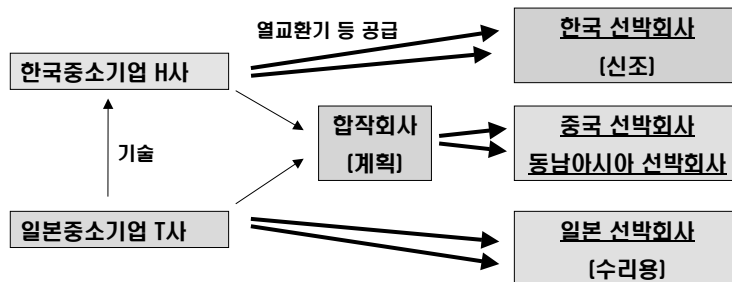
- (1) 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 (2) 중소기업간 생산제휴 유도
- (3) 중소기업간 공동 해외진출 활성화

### 한일 중소기업간 협력사례

#### 한국중소기업-일본중소기업: 한국/일본시장 판매



#### 한국중소기업-일본중소기업: 중국시장 공동진출 계획



## 전략 4: 한일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지원 전략

### 기본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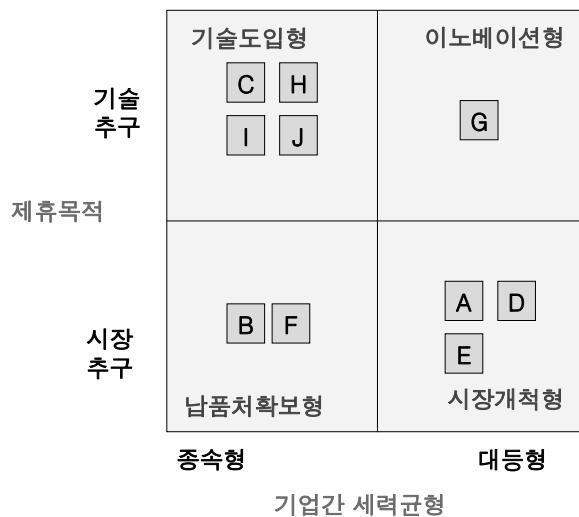
- 기업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차원의 지원

### 인프라 차원별 핵심과제

- [1] 인적교류 활성화
- [2] 정보교류 활성화

## < 참고 자료 >

### 기업간협력 사례 분석 결과: 10개 회사



- 01 한일경제협력의 변천과정과 필요성
- 02 한일기업간 협력 발전전략
- 03 한일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정부 및 기업의 역할

한국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li> <li>● 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li> <li>● 기업이 원하는 수요 파악</li> </ul>
일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기업과의 연계 수요 조사 강화</li> <li>● 기업간 연계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한국기업의 중요성 재인식</li> </ul>
한국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 안목으로 일본 기업과의 신뢰관계 구축</li> <li>● 기술력 향상 등을 통한 자사의 경쟁력 확보</li> </ul>
일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반자로서의 한국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중심주의(Ethnocentrism)지양, 협력 형태의 적극적 추구</li> </ul> </li> </ul>

## 한일경제협력의 핵심은 신뢰



한일 기업간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WIN-WIN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서 금방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신뢰관계에서 생겨나는 것

감사합니다

<Session Ⅲ>

(主題發表②)

# 韓・日 産業클러스터 推進 現況과 協力方案

金 仁 中

韓國産業團地公團 常務理事

# 1 산업클러스터 추진배경과 목적

## 【 한국 클러스터 】

□ 우리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요소투입형 성장시대에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산업환경의 변화로 한계에 봉착

- 지역의 산업단지는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주력기간제조업의 집적지로서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거점
  - \* 산업단지 국민경제 비중 : 제조업체 생산 53.2%, 수출 67.5%, 고용 42.4% 점유
  - \* 주력기간제조업은 장래에도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전망(2020년 GDP 성장 기여율 30.7%, 2020 산업발전전략)

< 제조업중 산업단지 비중, 주요단지의 성과지표 및 혁신역량 비교 >



- 그러나 “혁신주도형 경제 패러다임”에서 단순 생산기능 위주의 산업단지는 경제성장 주도의 한계에 봉착

- 산업단지는 생산기능은 충실하나, 산학연 협력, R&D 역량, 지식기반서비스, 정주여건 등이 취약

□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지식·정보 교류 ⇔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이 급선무

-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하여 경제도약을 견인할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 【 일본 클러스터 】

### □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추진하였던 산업입지정책 및 지역산업정책의 한계 봉착

- 종래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었던 지역경제진흥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계를 보이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산업의 공동화 및 지역간 성장 불균형 초래
  - 지역의 기술력 있는 중견중소기업의 고립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계열관계의 붕괴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
  - 인위적 기업재배치를 위한 정부의 하드인프라 건설 우선정책은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미비
- 기존 산업정책과 입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경제의 자립화·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클러스터 정책 도입의 필요성 확산

### □ 지역경제 자립화 도모를 위해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수립·집행

- 산학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동시에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신사업 산업클러스터 구축
- 지역의 연구개발능력, 산업집적의 특징을 비롯해, 전국 19개의 광역적 지역산업분야에 관하여 산업클러스터 형성 프로젝트를 추진
  - 기존 1기 산업클러스터 계획의 정책평가를 통해 목표와 비전을 재설정하고 정책과 기관과의 제휴를 명확히 해 제2기 산업클러스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 기존 19개 프로젝트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17개 프로젝트 추진

#### < 한·일 클러스터 추진 목표 비교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 : 산업단지 중심, 기존 산업(기업) 성장에 중점</li><li>○ 일본 : 지역구분 없음, 신사업 창출에 중점</li></ul> |
|---|

## 2 산업클러스터 구축 현황

### 【 한국 클러스터 】

#### 가. 사업추진 기반 구축

- 균형발전위원회(클러스터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주관부처 산업자원부) 정책조율을 통한 정책연계
-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산학연협력지원 전문기관(Network- broker)으로 개편, 7개 시범단지별 “클러스터 추진단” 구성
  - 지원기관협의회 및 전문가풀(기술, 경영, 법률, 회계 등)을 구성하여 유기적인 기업지원체계 구축
    - \* 협의회 : 지자체, 대학, 연구소, TP, 전략산업기획단, KOTRA 등 참여

#### 나.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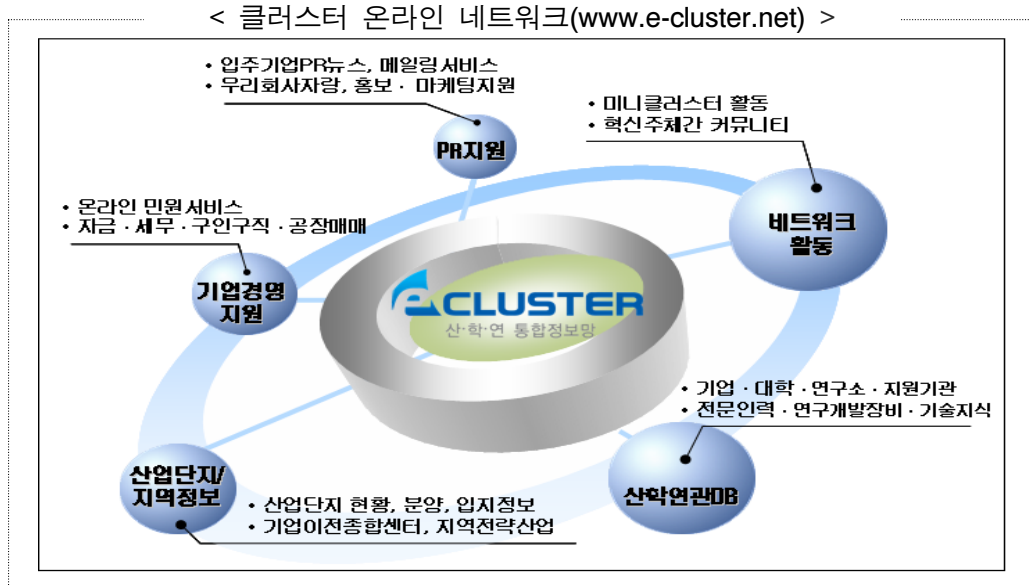
- 주력업종 등 단지별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기술분야별로 총 40개의 소규모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를 구성·운영
  - “클러스터 추진단”은 네트워크 브로커로서 미니클러스터와 지원기관협의회, 전문가 Pool을 연계

< 단지별 미니클러스터 구성 현황('07.7월말) >

창원 [5]	구미 [6]	울산 [4]	반월시화[8]	광주 [6]	원주 [7]	군산 [4]
기계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부품소재산업	광산업	의료기기산업	기계자동차
공작기계 금형 운송장비 메카트로닉스 금속소재	파워디스플레이 부품소재 금형 모바일 E&H IT 융합첨유 IT 장비	엔진모듈 파워트레인 차체/사시 의장모듈	정밀화학 섬유소재 자동차부품 전기전자(PCB) 정장도금 금형&소재 환경포럼 메카트로닉스	광통신부품 LED 광응용 전자부품 금형 자동차부품	전자의료기기 한방의료기기 재활의료기기 경영지원 의료기기디자인 의료기기부품 유 헬스	플라스틱 소성 기계철강 이업종지원



- 온라인 네트워크([www.e-cluster.net](http://www.e-cluster.net))를 통해 기술·지식·정보의 공유 및 실시간 의사소통 채널 확보



#### 다. R&D역량 강화 및 추진단 특성화 사업추진

-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단지별 부족한 R&D인프라 보완
- 시범단지별 주력업종은 해당 시·도의 전략산업과 일치
  - \* 7개 시범단지(시·도 기준) R&D인프라 지원('05~'06, 총 1,649억원) : 지역산업(1,080), 산기반(569)
- 미니클러스터 활동에 R&D자금을 연계 공급하여 지역내 기술혁신주체간 연계 강화

#### 라. 혁신분위기 확산

- 해외 선진 클러스터 벤치마킹, 정책사업 추진성과 홍보, 교류·협력기반 조성, 정책연구 활성화 등을 통한 혁신분위기 확산
- 혁신클러스터 국제회의 개최, 혁신박람회 전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날 개최, 산업클러스터 학회(KASIC) 설립('06.6), 성과보고회(VIP) 개최 등

## 【 일본 클러스터 】

### 가. 네트워크 형성 및 고도화 지원

-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추진조직과 거점조직의 사업지원
  - 민간기관을 프로젝트 추진조직으로 구성하고, 거점조직으로는 산업지원기관과 대학이 수행하며 클러스터 매니저를 배치
- 클러스터 관련 전국조직의 정비를 위해 클러스터 매니저 및 서브매니저로 구성된 회의 발족(2006)
- 프로젝트 관련 정보, 기술, 인력보완을 위한 타지역 클러스터와의 교류 촉진 (JETRO 및 경제산업국 활용)
  - 신규사업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시책, 지적재산관련 시책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 나. 연구개발 지원

- 지역기술시책을 활용하여 산학협력에 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련 위탁사업 및 연구개발 조성 보조사업 추진
- 창업지원(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서비스와의 협력
  - 인큐베이션 매니저를 핵으로 창업자, 인큐베이션 졸업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강화

### 다. 판로 및 자금조달 지원

- 상사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 JETRO의 해외네트워크 활용
- “산업클러스터 서포트 금융회의”의 지속적 추진
  - 지역금융기관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창업신규사업 전개 지원
  - 지역계 벤처펀드 활용

## 라. 부처간 협력강화

- 전국 17개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활용한 지자체의 연구개발, 창업, 기업유치 등 지원
  - 지자체의 세제지원 및 시설 등을 프로젝트에 활용
- 전국 지역과학기술시책과 관련해 관계부처간 연락회의 및 협의회 설치

### 《 일본 클러스터 주요 사업 》

지원사항	내 용
네트워크 형성	○ 프로젝트 추진조직(민간) 및 거점조직(대학, 유관기관) 설치 - 연구회, 전시회, 비즈니스 매칭 등 추진 ○ 클러스터 형성 관련 전국조직 정비 - 클러스터 매니저로 구성된 회의체 발족
네트워크 고도화	○ 클러스터 링크 촉진 - 국내외 클러스터간 원원을 위한 연계 ○ 신사업창출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시책 및 지적재산관련시책 등을 활용한 종합지원
연구개발	○ 산학연계에 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채택 ○ 산업기술시책 및 지적 클러스터 등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 상사와의 연계 지원 ○ JETRO의 해외네트워크 이용
자금조달	○ 산업 클러스터 서포트 금융회의 개최 ○ 지역계 벤처펀드 활용
인재육성	○ 산업지원인재 발굴 ○ 클러스터 매니저, 코디네이터 활동 강화
비즈니스 인큐베이션과 연계	○ 인큐베이션 매니저를 활용한 창업지원
지자체 시책과의 연계	○ 전국 17개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활용한 지자체의 연구개발, 창업, 기업유치 등 지원 ○ 지자체의 세제지원 및 시설 등을 프로젝트에 활용

자료 : 산업 클러스터 제2기 중기계획 (경제산업성, 2006)

### < 한·일 클러스터 추진 현황 비교 >

- 한국 : 추진조직의 일원화, 네트워크 구조, 범부처적 연계 미흡
- 일본 : 추진조직의 다양화, 네트워크 활성화, 경제산업성과 문무과학성 연계

### 3 산업클러스터의 주요 성과

#### 【 한국 클러스터 】

##### 가. 산업클러스터 평가시스템

- 중장기적인 성과지향적 평가관점 유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정책평과와 7개 추진단별 경쟁평가를 병행
- 클러스터 사업의 정책목표에 대한 구현 및 실현정도 등 정책의 적합성 평가
- 추진단별 실적평가, 성과평가, 만족도 평가를 종합한 추진단별 경쟁평가

#### 《클러스터 평가시스템》

실시방법	내 용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추진단별 경쟁 평가(담당 : 클러스터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단별 실적평가, 성과평가, 만족도 평가 등 추진단간 경쟁평가</li> </ul> </li> <li>○ 클러스터 정책 평가(담당 : 산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추진방향, 상위목표와의 부합성, 수행체계, 절차 및 과정의 적정성, 재원조달 및 배분의 합리성 등에 대한 평가</li> </ul> </li> <li>○ 평가종합 및 조정(담당 :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평가 및 추진단별 경쟁평가의 종합과 조정</li> </ul> </li> </ul>
외부평가 도입	○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20인 이내의 Pool) 설치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평가 조사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발굴건수, 참여율, 관리율, E-클러스터 활용도,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li> </ul> </li> <li>○ 정성평가 조사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적 부합성, 적정성 등</li> </ul> </li> <li>○ 정책 만족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실태조사 및 참여기업 설문조사</li> </ul> </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전담팀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 평가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자료(DB) 분석</li> <li>- 만족도 설문조사 분석</li> <li>- 현장 실태조사 및 사례조사</li> </ul> </li> </ul>
평가결과의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의 가속화, 차년도 성과(목표)지표 작성에 반영</li> <li>○ 추진단별 예산차등 반영</li> </ul>

## 나. 산업클러스터 주요 성과

### □ 네트워크 구축 확산

- 7개 시범단지 내 총 40개의 소규모 산학연합의회(미니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R&D 등 기업 애로과제 발굴
  - 총 3천여명의 클러스터 회원이 과제발굴 및 해결논의, 기술포럼, 세미나 등의 네트워킹 활용에 참여
    - 참여 회원수(명) : 3,129명
    - 세미나 등 네트워크 활동 건수 : 7,270건
    - 과제지원 건수 : 3,000건
  - 기업 애로과제 발굴 및 해결(완료 : 2,402건, 진행 : 592건)
    - 경영일반(2,994건), R&D(1,185건), 자금(107건), 인력(141건), 마케팅(835건), 기타(61건)
- 기업의 애로과제 해결지원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Pool(Cordinator) 구성·운영
  - 교수, 연구소, 기업지원서비스 등 기술 및 경영분야 전문인력 1,557명

#### 〈 산학연 전문가 Pool 구성현황 〉

( '07. 7월 현재)

전문가	기술분야	경영분야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기타
1,557명 (100%)	1,035명 (66.5%)	522명 (33.5%)	776명 (48.8%)	168명 (10.8%)	115명 (7.4%)	498명 (32.0%)

- 혁신클러스터 온라인 네트워크(www.e-cluster.net)를 구축하여 기술·지식·정보의 공유 및 실시간 의사소통 채널 확보
  - 16개 권역 150개 단지(국가 35, 지방 115) 산학연 통합정보망 구축

#### 〈 산학연 통합정보망 DB 구축현황( '07.7월) 〉

혁신주체(97,403건)				혁신자원(71,876,444건)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전문인력	연구장비	논문보고서	특허재산권	기술지식	생산제품
96,028社	378개	565개	432개	359,192명	53,597개	52,471,901건	18,824,338건	132,201건	35,215건

## □ R&D역량 강화

-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범단지 소재지의 R&D인프라 보완
  - 시범단지별 주력업종은 해당 시·도의 전략산업과 일치
  - \* 7개 시범단지(시·도 기준) R&D인프라 지원('05~'06, 총 1,649억원) : 지역산업(1,080), 산기반(569)
- 상대적으로 R&D인프라가 취약한 원주, 군산단지 등의 핵심과제는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
  - \* (원주) KTL 분소설치 및 TIC 장비고도화('05~'06, 59억원)
  - (군산) 클러스터 지원센터, 소필지화 사업비('06~'08, 210억원)
  - (반월시화) 게임기기 테스트 베드 구축 등 지원
- 미니클러스터 활동에 R&D자금을 연계 공급하여 지역내 기술 혁신주체간 연계 강화

## □ 정주여건 및 근무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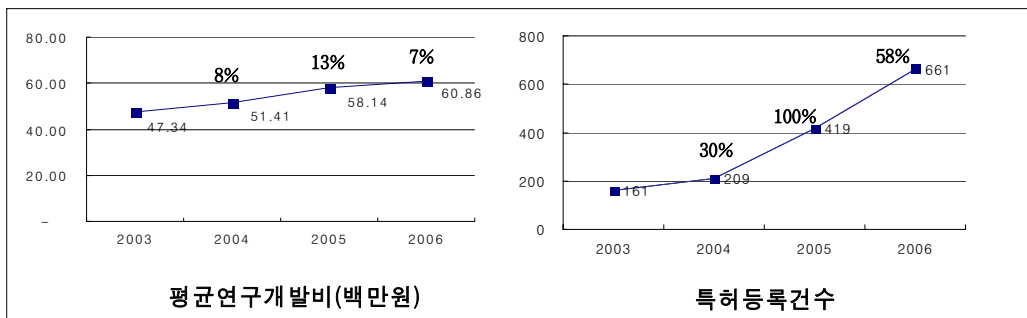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 노후 공장 리모델링 및 녹지공간 확충 등 단지내 근무환경 개선 도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T/F 구성·운영( '06.3-5월, 국회, 산자부, 건교부, 산단공)
  - \* 반월시화단지내 비즈니스 센터 건립 및 구조고도화 연구용역 추진 ('07년 반월시화, 남동, 대구성서 단지 예산 반영 : 150억원 반영)
- 오염물 무배출(Zero Emission)을 지향하는 생태산업단지\*(EIP) 시범사업을 통해 반월·시화, 울산 환경 개선
  - \* 자연 생태계를 모방하여 기업의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여 오염물 무배출을 지향(Eco-Industrial Park)
  - \* 06년부터 반월·시화 등 5개 시범단지를 대상으로 매년 45억원 투입

## □ 혁신클러스터 교류·협력 및 분위기 확산

- 혁신클러스터 국제회의 개최(5회)
-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성과 홍보 및 지역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혁신박람회 개최(3회 개최, 2004-2006)
- 주요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약(MOU) 등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구축
  - 국내 : 한국기술재단, KOTRA, 무역협회, 부품소재진흥원 등 122개 기관
  - 해외 : 영국 SEEDA, 핀란드 울루, 독일 슈타인바인스재단 등 17개 기관
- 산업클러스터학회(KASIC) 설립(06.6)을 통한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에 대한 산학연관 교류·협력 및 연구 활동 지원

## □ 참여기업의 성과분석(참여기업 모니터링 조사결과, 2007.4)

- 기업의 평균매출과 고용 및 연구개발비, 특허 등의 꾸준한 증가세 지속
- 단지내 교류·협력문화 개선을 통한 산학연 및 기업간 협력사업 활성화
  - ‘05년 협력건수 155건에서 ’ 06년 278건으로 79% 상승



## 【 일본 클러스터 】

### 가. 산업클러스터 평가시스템

- 장기플랜인 클러스터 사업의 경제·산업동향의 변화에 따른 진보와 성과확산을 위해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에 기초한 정책평가관리시스템 도입

#### 《PDCA 사이클 실시방법》

실시방법	내 용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프로젝트 평가(담당 : 각 지역 경제산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년도 사업의 사전평가와 전년도 사업추진 결과 및 목표달성치 파악 등의 사후평가 추진</li> </ul> </li> <li>○ 프로젝트 전체 평가(담당 : 경제산업성 지역경제산업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프로젝트별 사전·사후평가, 참여기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전체평가 추진</li> </ul> </li> <li>○ 전체 계획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도의 프로젝트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3년째 2년간의 중간평가 및 5년째 4년간의 사후평가 추진</li> </ul> </li> </ul>
외부평가 도입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설치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follow up 조사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방문·연구자 방문건수, 세미나 개최건수 및 참가자수, 교류회 개최건수·참가자수, 상담회(개최건수, 참가자수, 상담건수) 및 계약건수, 기술이전건수, 신사업 개시건수, 창업건수, 제2의 창업건수, IPO건수 등</li> </ul> </li> <li>○ 모니터링 조사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참가효과(연계성, 연구개발, 신사업, 창업, 매출, 종업원) 프로젝트 이익도·만족도·기대도 등</li> </ul> </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follow up 조사(년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5월 : 프로젝트 사후평가 지표</li> <li>- 12-1월 : 프로젝트 예산배분 지표</li> </ul> </li> <li>○ 모니터링 조사(년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0월경 : 양케이트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정책 전반 평가</li> </ul> </li> </ul>
평가결과의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의 가속화, 재편통합, 폐지, 목표치 수정 등의 조정</li> <li>○ 예산배분의 차별화</li> </ul>

자료 : 산업 클러스터 제2기 중기계획 (경제산업성, 2006)



## 나. 산업클러스터 주요 성과

### □ 지역 산학연관 네트워크 형성 촉진

실시항목	실시회수 · 건수	⇒	○ 참여기업 : 약 6,100개사  ○ 참여대학 : 약 250개
기업방문 건수	약 18,000건		
연구자방문 건수	약 6,800건		
세미나 개최	약 1,200회(참가자 : 약 20만명)		
산학교류회	약 1,400회(참가자 : 약 12만명)		
상담회	약 400회(참가자 : 약 16.3만명)		

#### ○ 네트워크 확대

- 산업지원기관·대학의 「거점조직(81개)」 화를 통해 기업, 대학,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참여율 증가

#### ○ 클러스터 인재 배치

- 산업 클러스터 활동의 중심으로서 클러스터 매니저(민간비즈니스 경험자) 배치를 통한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105명)

### □ 신산업·신규사업 창출지원

#### ○ 신산업의 창출

- 신규사업 창출 : 약 17,000건( '01-' 03)
- 상담회, 기술교류회 개최 및 코디네이터 파견 : 매칭 708건, 기술이전 145건

#### ○ 기술개발 추진

- 지역산학협력형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지역신생 컨소시엄 연구개발사업) : 1,130건 중 약 300건의 사업화(27%)

- 지적클러스터 육성사업과의 연계 : 20건( '05)
- 중소기업지원책과의 협력
  - 지역 제조업 혁신체제 설정 : 7건
  - 신연계·제휴지원제도 활용 : 80건(총 170건)
- 대학발 벤처 창출지원 : 133개사(총 683개사)
- 자금공급, 판로개척,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 산업클러스터 서포트 금융회의 : 125건, 24억엔 융자실시
  - JETRO를 통한 해외 판로개척 및 교류지원
    - TAMA ↔ 이탈리아 베네트주
    - 히로시마현 ↔ 스위스 츠쿠주
  - Business Incubation : 100개소(전국 약 300개소)

□ 네트워크 형성·이노베이션 창출효과 : 참가기업 모니터링 조사결과('06. 3)

프로젝트 참가에 의한 사업 연휴 추진기업	17.2%
프로젝트 참가에 의한 산학관 연휴 추진기업	21.8%
창업 · 제2창업 건수	413건
IPO 건수	10건

□ 경제효과 창출 : 참가기업 모니터링 조사결과('06. 3)

클러스터 활동이 매상증대와 관련이 있었던 기업	12.3%
클러스터 활동이 이익증대와 관련이 있었던 기업	9.0%
클러스터 활동이 종업원수 증대와 관련이 있었던 기업	7.2%

< 한·일 클러스터 성과 비교 >

- 한국 : 네트워크 구축, 탐색공동체 수준, 성과창출, 폐쇄적
- 일본 : 네트워크 활성화, 성과창출, 개방적

## 4 한·일 산업클러스터 사례비교

### 【 반월/시화클러스터 】

#### □ 단지현황 및 클러스터 추진 배경

- 반월/시화단지는 서해안 및 수도권 서부지역에 위치한 단지(1977-2002년)로 약 8,363개사(중소기업 99.6%)가 입주하고 있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 집적지
  - \* 총면적 : 31,942천㎡, 고용인원 : 174,445명, 생산 : 44조원, 수출 : 7,347백만달러, 주요업종 : 기계(45%), 전기전자(15%), 석유화학(10%), 철강(7%)
- 자체기술 혁신 및 글로벌 경영역량 미흡, 임차기업(43%) 증가, 단지내 인프라 노후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산업클러스터 추진

#### □ 추진과제 : 첨단부품소재 글로벌 공급기지화

- 8개 주력 업종별 산학연 협의체(조정밀가공, 전자부품, 도금 등)를 통해 맞춤형기술 지원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 부품혁신분야 : 전기전자(PCB),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부품
  - \* 소재혁신분야 : 정밀화학, 섬유소재
  - \* 기반기술분야 : 청정도금, 금형&소재, 환경포럼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창업기업 입지공간 확충, 생태산업단지시범사업(폐수처리 기술개발) 등 쾌적한 근무 환경조성
- 조정밀가공, 나노광, 게임(시화) 등 기반기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첨단기술분야로 구조고도화 지원

#### □ 육성목표

- 기계장비, 전자전기부품, 첨단소재·가공산업 글로벌화
  - 2008년 목표 : 매출 : 50조원, 수출 : 100억달러, 고용 : 18만명

【 반월/시화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현황 】

사업명	반월/시화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목표	수도권 배후지원 산업단지에서 글로벌 지향적 혁신산업단지로 거듭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글로벌 공급기지로 육성	
대상지역	수도권 서부지역(반월/시화 국가단지)	
중점산업	기계장비, 전자전기부품, 첨단소재 · 가공산업	
추진조직	반월/시화 클러스터 추진단	
거점조직	산단공, 중진공, KOTRA, 경기TP, 생산기술연구원, KTL,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경기중기센터, 한양대, 산기대 등	
네트워크 구성	기업(564), 대학(120), 연구소(58), 지원기관(60)	
2008년 비전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글로벌 공급기지	
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과 연계한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li> <li>○ 부품소재 육성프로그램 등을 통한 부품소재기업 집중 육성</li> <li>○ 독립 브랜드 중견기업 중심의 기업구조 개편</li> </ul>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분야 부품소재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전자, 메카트로닉스, 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섬유소재, 청정도금, 금형 · 소재, 환경포럼 등 8개의 미니클러스터 구축</li> <li>-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발굴된 애로과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8건(8,788백만원) 지원</li> </ul> </li> <li>- 산학연 전문가 인력 pool(417명)을 구성해 애로기술에 대한 지도, 기술 · 경영컨설팅 분야에 대한 전문코디네이터로 활용</li> <li>-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16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4), 연구소(3), 정부/지자체(4), 지원기관(5)</li> </ul> </li> </ul> </li> </ul>	
2008년 목표	정량적	○2008년 목표(매출50조, 수출 81억불, 고용 16만명)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분야의 부품소재 미니클러스터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li> <li>○첨단기업에 대한 입지공급 확대(아파트형공장 건립, 시화학장단지내 임대전용단지 조성)</li> <li>○산업단지 인프라 재정비(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li> </ul>

## 【 TAMA클러스터 】

### □ 현황 및 클러스터 추진 배경

- TAMA 클러스터는 도쿄도 타마지구, 가나가와현 중앙부, 사이타마현 남서부를 아우르는 기술선진수도권지역(Technology Advanced Metropolitan Area)
  - 산업용 기계, 전자기기, 통신기기 및 관련 S/W개발을 중점사업으로 민간 주도형((사) 수도권산업활성화협회) 산업클러스터 형성
- 도쿄를 중심으로 하츠오지, 사가미하라, 마치다 등의 「지방도시형 집적」과 사야마 등의 「기업형 집적(企業城下町型集積)」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광역 네트워크형 집적지
  - 대단위 소비지역과 가까워 정보획득이 쉽고, 학술연구기관 및 각종 회의·학회 등이 많이 있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입지로서 최적의 조건
  - \* 전국적인 제조업체 감소현상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제조업체는 계속 증가추세

### □ 추진과제 : 바이오, 광산업, 기계 나노 등의 최첨단 기술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거점 형성

- 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와 수준 높은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창출거점 형성
  - 사업추진을 위해 제품개발과 기술력 향상 지원,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산업인재의 확보와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제 발굴·지원

### □ 육성목표

-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천 건의 신사업개시
  - 제품개발형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기회확대를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확대와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금융, 펀드 네트워크 강화, 기반기술형 기업에 대한 기술력 강화 및 인재육성 지원

【 TAMA 클러스터 구축사업 현황 】

사업명	수도권 서부 네트워크 지원활동(TAMA)	
목표	기업의 연구개발력·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및 수준높은 네트워크화와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인재·판로 등 외부경영자원의 신속한 보완체제를 정비하여 세계 굴지의 신규 산업창출거점의 형성	
대상지역	수도권 서부지역(사이타마현 남서부, 도쿄도 타마지구, 가나가와현 중앙부)	
중점산업	산업용기계, 전자기기, 통신기기 및 관련 S/W개발	
추진조직	(사)수도권산업활성화협회(TAMA협회)	
거점조직	사야마상공회의소, (재)도쿄도중소기업진흥공사, (재)가와사키시산업진흥재단, 아츠기상공회의소, 아오우메상공회의소, (주)사가미하라산업창조센터	
네트워크 구성	기업(350), 대학(40), 지자체(21), 금융기관(16)	
제2기 비전	바이오, 광산업, 기계, 나노 등의 최첨단 기술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거점 TAMA	
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개발력·기술력 향상</li> <li>○ 창업·사업화 지원</li> <li>○ 산업인재 확보·육성지원</li> </ul>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중소기업간 이업종교류회 「EMS-R2」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클러스터 기술교류상담회('05. 7/한국산업단지공단)를 계기로 설립</li> <li>- 시제품 개발에서 양산까지 교류회 내 고부가가치제품 공급체제 구축</li> <li>- 회원사 : 약 61개사</li> <li>- 거래건수 : 84건</li> <li>- 총거래액 : 약 1,900만엔</li> </ul> </li> <li>* 자료 : www.ems-r2.com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체조사('07. 4 현재)</li> </ul>	
제2기 목표	정량적	○ 신사업 개시건수 : 2,000건/5년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개발형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한 산학연계·산산 연계 확대</li> <li>○ 금융 및 펀드 기능이 추가된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사업화 지원 강화</li> <li>○ 우수한 기반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 강화와 인재육성 지원</li> </ul>

## 5 한·일 산업클러스터의 시사점과 협력방안

### (1) 한·일 산업클러스터 비교의 시사점

#### □ 개방형 클러스터 육성(한·일 산업클러스터 협력 강화)

-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있어 지역클러스터는 지역 내 내부연계 보다는 개방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교류가 보다 효과적
- 지역클러스터 내 핵심기술이나 인력공급이 반드시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족분의 경우 외부에서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효율적
- 특히 한·일간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양국간 경제교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양국 산업클러스터간 협력강화가 긴요
- 한·일 경제교류의 규모와 다양한 산업협력의 성장세는 양국간 산업구조상의 상호보완성과 경쟁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클러스터간 협력강화는 양국간 경제교류의 안정적 확대에 기여
- 따라서 한·일 산업클러스터간 다양하고 체계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과 실천적인 발전방안을 연구·도출함으로써 양국 산업클러스터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 □ 현장주의 강화와 자율적인 사업 추진

- 지역은 각기 다른 다양한 문화와 산업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 클러스터 또한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책수단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역중심의 자율적 사업추진이 필요

- 해외 클러스터 정책의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가장 나쁜 클러스터 정책은 획일화, 표준화된 정책모형과 정책수단의 적용임.
- \* 해당 클러스터 정책이 특정지역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산업환경 및 혁신역량의 차이로 인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 염두
-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과정에서 현장주의를 강화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그 기법을 전국에 확산하여 지역 고유의 클러스터가 전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도록 유도
- 일본의 경우 과거 수도권 분산정책이나 테크노폴리스 사업 등과 같은 지역산업정책의 주요 실패원인 중의 하나가 일률적·중앙통제적 정책수립과 운영임.
- 따라서 해당 지역별 산업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IT, BT, NT 등 첨단산업 위주의 일방적 정책 보다는, 개별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잠재성을 고려해 지역에 뿌리내린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클러스터 정책의 집행이 중요
- 한국의 클러스터 또한 각 클러스터 추진단과 클러스터 사무국(한국산업단지공단)에 그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각 클러스터별 운영이 지역 여건이나 세계경제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이고 개성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 중

#### □ 혁신클러스터 추진주체별 역할 정립과 자발적 참여

- 혁신클러스터 구축은 지역의 다양한 혁신주체간들의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역량 및 경쟁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정부와 추진주체들간의 적극적인 역할분담이 중요
- 성공적인 해외 클러스터의 공통적인 특징은 클러스터 내 혁신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동성(Dynamism)을 증가
- \* 다기화된 추진시스템은 클러스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정책보다는 각 부처나 해당 지자체의 자기조직 확대 내지는 예산확보의 수단으로 전략할 우려



-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추진보다는 지자체와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지역 내 대학 및 연구소, 대기업도 클러스터의 핵심적 주체로서 자발적인 역할수행이 요구
- 일본의 클러스터 사업은 기업중심의 산업 클러스터와 대학중심의 지적 클러스터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추진주체간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
  - 따라서 두 클러스터간 세부사업들의 연계와 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마련이 중요
  - \* 추진주체간 역할분담을 위해 현재 총리직속의 종합과학기술회의 설치, (재)일본입지센터내 산업·지적 클러스터 포럼 사무국 운영 등은 추진주체별, 사업별 조정(역할분담)에 매우 고무적

#### 〈 혁신클러스터 구성주체별 주요 역할 〉

- <u>중앙정부</u> : 지역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과학기술기반 구축, 민간부문의 참여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 <u>지자체</u> :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환경 조성, 특수성을 반영한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다양한 지역정책의 연계와 확산 등
- <u>대학, 연구소</u> : 지식의 생산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 효과적인 지식이전 등
- <u>지원기관</u> : 사업홍보 및 확산, 지속적인 경쟁력 진단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혁신주체들의 참여 독려 등
- <u>대기업</u> : 중소기업과의 수평적·협력적 관계 구축 노력, 지역 발전비전 제시 등

#### □ 정책의 지속성 및 일관성 확보

-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혁신주체간 협력과 신뢰관계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비가시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정책의 지속성 및 일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
  - 따라서 단기적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주체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인 협력과 시너지 효과가 창출 가능한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
- 특히 한일 양국에 있어 현 시점에서 클러스터 사업의 연속성 확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

- 한국의 경우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참여정부 들어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정권변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정책기조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일본 또한 지난 9월 후쿠다 야스오 내각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지역별 성장격차 완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클러스터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 슈화
- \*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판 실리콘 밸리를 꿈꾸며 출범한 독일 쾰른의 Media Park 조성계획은 통일 이후 베를린으로의 집중적인 투자에 따른 기업의 유출, 지방정부의 정당교체에 기인한 투자 및 운영계획의 변경 등으로 Media Park 조성사업은 활력이 급격히 저하
- 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클러스터 사업의 성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만큼 정치적인 변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동 사업에 대한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 일본의 장기 20년 정책(10년 지원, 10년 자율)

## (2) 한일 산업클러스터 협력방안

□ 한일 산업클러스터간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한일 산업클러스터 연합 (Korea-Japan Industrial Cluster Coalition) / 가칭」 설치

- 양국의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계획이 수립되고, 산하의 추진기관에 의해 세부사업이 추진되는 형태
- 주관부처인 한국의 산업자원부 및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기관인 한국의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일본의 TAMA산업활성화협회, K-RIP 등으로 구성된 한일 산업클러스터 협력기구 설치
- 양국의 산업클러스터 정부관계자 및 실무담당자가 참가하는 협의회를 양국에서 격년으로 개최하여 한일 산업클러스터간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사

업 및 신규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협의

## □ 세부 공동사업 추진 방안

- 양국 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산·학·연·관간의 교류의 장인 「동아시아 공동체 클러스터 프라자(The East Asia Community Cluster Plaza) / 가칭」를 격년으로 양국에서 개최
- 한·일 산업클러스터 정책포럼
  - 양국 산업클러스터 추진 현황 발표
    - \* 예 : 전체 현황, 우수사례 발굴, 신규사업 창출, R&D 역량강화 등
  - 상호간 산업클러스터 평가 및 조언(한↔일)
  - 제3국의 산업클러스터 전문가 초청을 통한 선진 클러스터 벤치마킹
    - \* 예 : 미국 실리콘밸리, 핀란드 울루 등
  - 3국 산업클러스터와의 협력채널 구축
    - \* 예 : 한·일·미 클러스터간 MOU 체결 등
- 전략업종별 교류회
  - 한국의 7개 클러스터 및 미니클러스터, 일본의 17개 클러스터 및 미니클러스터(연구회)를 전략업종별로 연계
    - \* 예 : [전자] 구미 ↔ 규슈 실리콘 / [광산업] 광주 ↔ 간토 산엔난신)
  - 전시회, 무역상담회, 선도기업 발표회, 전문가 등 인력교류, 기술장터, 애로과제 발굴 및 해결논의 등 추진
- 신기술 발표회
  - 양국의 기업 및 대학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발표하여, 사업화할 기업의 공모 혹은 공동 권소사업 구성
- 산업클러스터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일 산업클러스터 인스티튜트(Korea Japan Industrial Cluster Institute) / 가칭」 설립
- 산업클러스터 관련 기술개발 및 거래, 마케팅, 네트워크, 창업보육 등에 대한 산업클러스터 브로커로서의 인재양성

- 연1회 제3국으로 산업클러스터 연수단을 공동으로 파견하여 파견국의 산업클러스터 벤치마킹 및 관련 자료수집
- 한·일 산업클러스터 학회 설립
- 산업클러스터 관련 공동연구 수행
- 산업클러스터 관련 연구과제 위·수탁
- 양국의 클러스터 평가단계에서 상호간 참여하여 조언 및 평가
- 한·일 통합 포털망 구축
- 한국어·일본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산업클러스터 포털망 구축을 통해 양국 산업클러스터 및 산·학·연 관련 정보 및 자료 교류
- 최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자동번역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종별·지역별 on-line 동호회 활성화

<Session Ⅲ>

## 한일 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한일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제언

# 한일 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한

## 한일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제언

### 1) 한국 정부에 대한 제언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마련
  - 기업 활동이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한국 기업 및 일본기업들이 한국 내에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함
  - 특히 한국의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함
  - 현재 한일간 현안이 되어 있는 대일무역적자 문제도 국내 대기업의 지속적인 국내투자가 유지될 경우 국내에 부품소재 산업이 발전하고 일본기업 등 해외 부품소재 기업이 국내에 투자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음
- 우호적인 대일관계 형성을 위한 여론의 조성
  - 악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대일 반감을 가능하면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언론기관이 대일 반감을 부추기는 프로그램이나 기사를 자제하고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한일 관계를 부각시키도록 정부가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한일 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
  - 한일 기업간 연계를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의 사업은 상당부분 중복되어 진행되고 있음
  - 기관별 지원사업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관별로 상대적 역량이 높은 사업에 특화시키는 등 명확한 지원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음
  - 가령, 한일 기업 정보와 양국간 기술자 교류는 한일산업기술재단 대한 투자 확대 및 대일 시장 개척은 KOTRA 등으로 한일간 연계를 분야별, 기관별로 세분화 혹은 특화해야 함
- 국내 기업이 원하는 지원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 그간 한일 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투자를 한국으로 유치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국내 기업(특히 중소기업)이 일본기업과 가장 원하는 협력형태는 대일 수출확대임
  - 대일수출을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당장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기업풍토(특히 중소기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기업의 이러한 요구를 고려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일본기업이 원하는 한일 기업간 연계 방안도 염두 해 두어야 함
- 일본기업 특히 일본 중소기업 중에는 최근 한국기업과의 상호보완을 원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 특히 그 상호보완 형태로 “한국기업의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시장 개척 및 확대”, “상호기술, 노하우를 활용한 신제품개발”, “한국기업에 대한 생산위탁”, “상호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국 진출” 등에 기대를 하고 있음
  -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협력을 위해 바람직함

## 2)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

-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기업과의 연계 수요 조사 강화
- 일본의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한국기업 정보는 물론 한국전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임
  - 따라서 정기적으로 한국기업과의 연계를 원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단, 거시적인 차원의 지원정책의 경우는 당사자인 일본기업이 협력의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한 단계 더 내려간 산업, 기업, 기술의 한일 협력사례를 발굴하여 협력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제시하여야만 일본기업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임
- 기업 간 연계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한국기업의 중요성 재인식
- 일본은 중국의 경제적 위상 강화로 공동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산업구조 개편 등의 방향성 등에서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한일 양국 모두 IT를 중심으로 한 성장과 차세대 신산업 발굴 등을 경제재건의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변화를 일본기업들에게 계몽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일본 정부 및 산하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임

### 3) 한국기업에 대한 제언

- 장기적 안목으로 일본 기업과의 신뢰관계 구축
  -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상거래 등 일본 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 시장 개척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일단 성사된 거래에 대해서는 장기간 유지되고 또 다른 비즈니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큼
  - 따라서 일본기업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호적인 관계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기술력 향상 등을 통한 자사의 경쟁력 확보
  - 지금의 한일 기업간 관계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의한 결과이므로 앞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한일간의 새로운 기업간 관계를 형성할 것이 분명함
  - 새로운 패러다임의 내용은 한일 양국 기업이 상생하는 것이며, 그 전제는 기술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일본기업이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임
  -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이 기술력 향상을 통한 자사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 4) 일본기업에 대한 제언

- ‘동반자로서의 한국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 한국기업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나 최근 일부 보여지는 한국기업 경계론을 지양하고 한일 기업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필요함
  - 지나친 자국중심주의(Ethnocentrism)을 지양하고, Win-Win 한일경제 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한일 기업 간의 협력 형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음



## 5) 한·일 산업클러스터간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 「한·일 산업클러스터 연합(Korea·Japan Industrial Cluster Coalition) / 가칭」 설치

- 주관부처인 한국의 산업자원부 및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기관인 한국의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일본의TAMA산업활성화협회, K-RIP 등으로 구성된 한·일 산업클러스터 협력기구 설치함
- 양국의 산업클러스터 정부관계자 및 실무담당자가 참가하는 협의회를 양국에서 격년으로 개최하여 한·일 산업클러스터간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사업 및 신규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협의함

## □ 세부 공동사업 추진 방안

사업 명칭	구체적 내용
한·일 산업클러스터 정책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산업클러스터 추진 현황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 전체 현황, 우수사례 발굴, 신규사업 창출, R&amp;D 역량강화 등</li> </ul> </li> <li>· 상호간 산업클러스터 평가 및 조언(한↔일)</li> <li>· 제3국의 산업클러스터 전문가초청을 통한 선진 클러스터 벤치마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 미국 실리콘밸리, 핀란드 울루 등</li> </ul> </li> <li>· 3국 산업클러스터와의 협력채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 한·일·미 클러스터간 MOU 체결 등</li> </ul> </li> </ul>
전략업종별 교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7개 클러스터 및 미니클러스터, 일본의 17개 클러스터 및 미니클러스터(연구회)를 전략업종별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 [전자] 구미 ↔ 규슈 실리콘 / [광산업] 광주 ↔ 간토 산엔난신)</li> </ul> </li> <li>· 전시회, 무역상담회, 선도기업 발표회, 전문가 등 인력교류, 기술장터, 애로과제 발굴 및 해결논의 등 추진</li> </ul>
신기술 발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의 기업 및 대학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발표하여 사업화할 기업의 공모 혹은 공동 컨소시엄 구성</li> </ul>

사업 명칭	구체적 내용
산업클러스터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일 산업클러스터 인스티튜트 (Korea Japan Industrial Cluster Institute) / 가칭」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클러스터 관련 기술개발 및 거래, 마케팅, 네트워크, 창업보육 등에 대한 산업클러스터 브로커로서의 인재양성</li> <li>- 연1회 제3국으로 산업클러스터 연수단을 공동으로 파견 하여 파견국의 산업클러스터 벤치마킹 및 관련 자료수집</li> </ul>
한·일 산업클러스터 학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클러스터 관련 공동연구 수행</li> <li>- 산업클러스터 관련 연구과제 위·수탁</li> <li>- 양국의 클러스터 평가단계에서 상호간 참여하여 조언 및 평가</li> </ul>
한·일 통합 포털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일본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산업클러스터 포털망 구축을 통해 양국 산업클러스터 및 산·학·연 관련 정보 및 자료 교류</li> <li>- 최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자동번역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종별·지역별 on-line 동호회 활성화</li> </ul>

## V. 참고 자료

#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규약

2007년 3월 16일

1.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신산업무역회의로 한다

## 2. 조직

- (1) 본 회의는 한일 양국 경제계의 연락·협의기관으로서 (사)한일경제협회 및 (사)일한경제협회 회원 등으로 조직된 한일/일한경제인회의의 산하 회의체로서 운영되며, 별도로 정하는 활동을 통해 경제인회의를 보좌·보완한다.
- (2) 양국은 매년 1회, 혹은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한일합동 신산업무역회의(이하,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 (3) 합동회의는 양국 각각 의장(체어맨) 1명, 부의장(부체어맨), 코디네이터 약간명을 둘 수가 있다. 의장은 본회의의 경제인회의에 대한 대표책임을 맡는다. 부의장, 코디네이터는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4) 합동회의는 각국의 국내회의의 모든 위원이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양국은 본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국내회의를 설치하여 자유롭게 구성과 운영방법을 정할 수 있다.

## 3. 목적과 활동

- (1) 경제인회의를 보좌·보완할 수 있도록,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의 정보와 의견 교환을 통해 인식 공유와 아울러 경제인회의를 통해 정부와 업계 등에 제언·요망하는 것을 본 회의의 목적으로 한다.
- (2) 전항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양국 경제의 현상에 대해 상세한 보고와 검토를 한다
  - 2) 합동회의는 이하 4개의 미션에 대해 한일 공통의 과제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산업과 무역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대해서 토의한다. 4개의 미션은 ①한일간의 무역확대 ②한일간의 투자확대 ③한일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④한일산업경쟁력강화 프로젝트를 칭한다
  - 3) 상기 사항에 관해 애로사항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업계 등에 제언·요망을 경제인회의에 제안한다
  - 4) 제언·요망을 실시할 경우 필요에 따라 양국이 각각 또는 합동으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기간의 활동을 한다
  - 5) 기타 각 국내회의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토의, 의견교환을 한다.

#### 4. 운영

- (1) 합동회의는 원칙적으로 교대로 양국내에서 개최한다.
- (2) 합동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의의 분과회 등을 둘 수 있다 실시할 경우에는 의장 등의 인선은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 (3) 합동회의의 활동상황은 다음에 개최되는 경제인회의에 보고한다.
- (4) 합동회의 개최기일은 경제인회의 개최 후 반년 경과시점을 목표로 한다. 기간, 의제, 기타 개최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항목은 원칙적으로 양국내회의의 동의에 의거하여 사전에 결정한다 합동회의는 필요에 따라 연도내 복수회의 개최도 실시가능한 것으로 한다.

#### 5. 경비

합동회의 개최에 있어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각 경비는 기구, 비품은 기본적으로 주최국 부담으로 하고 리셉션은 양국이 절반씩 부담하며, 참가자의 여비, 체재비 등은 각각 양국 개별부담으로 한다.

#### 6. 사무국

- (1) 합동회의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각 국내회의에 각각 기획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의 사무국을 둔다.
- (2) 양국 사무국은 의장, 부의장(부체어맨), 코디네이터와 양국 경제협회, 그리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사에서 지명하여 구성한다.
- (3) 사무국장은 양국 경제협회에서 선출된 위원(간사위원)이 맡는다.

본 규약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작성하고 양문(兩文)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본 규약은 한국측 및 일본측의 체어맨이 서명한 후 각각 보관한다.

이상

(사)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신산업무역회의 한국측체어맨

麻生LAFARGE CEMENT(株) 社長  
신산업무역회의 일본측체어맨

---

유 창 무

---

麻生 泰

## 韓日新産業貿易會議 開催実績

年度 回次	期 場 所	兩 國 參 加 者	主 要 會 議 內 容	其 他 活 動
1999年 第1回	10. 14~15  日 本 千 葉 (カズサイク)	1. 韓國側 -姜 萬 洙 채어맨 (KANG Man Soo) 金 都 亨 코디네이터代行 (KIM Do Hyung) 等 26名  2. 日本側 -秋山 富一 채어맨 (AKIYAMA Tomichi) 大慈彌 省三 코디네이터 (OZIMI Shozo) 等 32名	1. 第 1 Session [Theme : 韓日經濟現況의 認識과 意見交換] -日時 : 10. 14(木) 15:40 ~ 18:10 -場所 : 카즈사이크 2F 大會議室 202B -主題發表 ・日本側 : 立花 宏(TACHIBANA Hiroshi) (社)經濟團體連合會 常務理事 『日本에 있어서의 産業競爭力 強化에 대한 努力』 ・韓國側 : 李地平(LEE Ji Pyong) LG經濟研究院 研究Center 副研究委員 『韓國企業의 經營改革과 韓日協力方案』  2. 第 2 Session [Theme : 兩國의 企業風土와 商慣習 “글로벌 스탠더드”와 關連하여- 日本에서 본 韓國, 韓國에서 본 日本 “評價와 期待, 世界市場을 指向하여-] -日時 : 10. 15(金) 09:00 ~ 12:00 -場所 : 카즈사이크 2F 大會議室 202B -主題發表 ・日本側 : 村上 弘芳(MURAKAMI Hiroyoshi)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태마의 目的과 進行方法 및 韓國의 企業風土와 商慣習 히어리結果』 ・韓國側 : 金大郁(KIM Dai Wook) 駐日韓國企業聯合會 會長 『日本의 企業文化와 商慣行 -日本 經濟界에 바람-』	1. RECEPTION -日時 : 10. 14(木) 18:30 ~ 20:00 -場所 : HOTEL 2F 有明の間  2. 午餐 懇談會 -日時 : 10. 15(金) 12:00 ~ 13:20 -場所 : HOTEL 2F 有明の間  3. OPTION PROGRAM(觀光) -日時 : 10. 15(金) 16:00 ~ 18:00 -場所 : 우미호파루

年 度 回 次	期 間 場 所	兩 參 加 者	國 者	主 要 會 議 內 容	其 他 活 動
2000年 第2回	11. 16~17  韓 國 서 울 (Trade Tower)	1. 韓國側 -趙 健 鎬 채어맨 (CHO Kun Ho) 李 洙 鎰 코디네이터 (LEE Soo Chul) 等 37名  2. 日本側 -秋山 富一 채어맨 (AKIYAMA Tomiichi) 大慈彌 省三 코디네이터 (OZIMI Shozo) 等 34名	1. 第 1 Session [Theme : 韓日 各各의 經濟現況과 課題에 대하여] -日時 : 11. 16(木) 15:30~18:10 -場所 : 49F 韓國貿易協會 大會議室 -主題發表 ・韓國側 : 許贊國(HUH Chan Guk) 韓國經濟研究院 先任研究員 및 巨擘室長 『韓國經濟의 現況과 展望』 ・日本側 : 藤原 勝博(FUJIWARA Katsuhiko) (社)經濟團體連合會 常務理事 『日本の 經濟 情勢와 向後 課題』  2. 第 2 Session [Theme : 今後的의 韓日 經濟協力 方案에 대하여] -日時 : 11. 17(金) 09:00~14:30 -場所 : 49F 韓國貿易協會 大會議室 -主題發表 (PART I) 韓日 部品・素材產業 協力方案 ・韓國側 : 宋錫俊(SONG Seok Joon) (株)巨養 代表理事 『“韓日 部品・素材產業 協力方案”에 대하여』 (PART II) 韓日 自由貿易協定(FTA) ・日本側 : 山澤 逸平(YAMAZAWA Ippei) 日本貿易振興會 아시아經濟研究所 所長 『21世紀의 바람직한 日韓 經濟關係』 ・韓國側 : 金都亨(KIM Do Hyung) 啓明大學校 國際學部 教授 『韓日 FTA 推進을 위한 知的・物的 인프라整備』	1. RECEPTION -日時 : 11. 16(木) 18:30~20:00 -場所 : 51F 貿易CLUB 다이아몬드  2. 午餐 懇談會 -日時 : 11. 17(金) 12:00~13:20 -場所 : 51F 貿易CLUB 다이아몬드  3. OPTION PROGRAM(見學) -日時 : 11. 17(金) 15:00~16:30 -場所 : 김치博物館	

年度 回次	期 場 所	兩 參 加 者	主 要 會 議 內 容	其 他 活 動
2001年 第3回	11. 15~17  日 本 福 岡 (福岡 SOFT RESEARCH PARK)	1. 韓國側 -趙 健 鎬 채어맨 (CHO Kun Ho) 李 洙 喆 코디네이터 (LEE Soo Chul) 等 18名  2. 日本側 -秋山 富一 채어맨 (Akiyama Tomichi) 大慈彌 省三 코디네이터 (Ozumi Shozo) 等 30名	1. 第 1 Session [Theme : 在韓 日本企業에서 본 韓國經濟, 在日 韓國企業에서 본 日本經濟] -日時 : 11. 15(木) 15:30~18:00 -場所 : 2F SRP HALL -主題發表 ・日本側 : 永宮 直史(NAGAMIYA Tadashi) 野村總合研究所 SEOUL支店長 『韓國의 經濟改革 評價와 向後의 經濟課題』 ・韓國側 : 金貞湜(KIM Jung Sik) 駐日韓國企業聯合會 會長, 現代JAPAN(株) 代表取締役 社長 『在日 韓國企業에서 본 日本經濟』  2. 第 2 Session [Theme : 韓日 FTA의 實現을 향하여] -日時 : 11. 16(金) 09:00~12:00 -場所 : 2F SRP HALL -主題發表 ・日本側 : 藤原 勝博(FUJIWARA Katsuhito) (社)經濟團體連合會 常務理事 『日韓 産業協力과 FTA의 展望』 ・韓國側 : 鄭 仁 教(CHEONG In Kyo) 對外經濟政策研究院(KIEP) FTA研究TEAM長 『韓・日 FTA의 經濟的 效果와 戰略的 重要性』  3. 第 3 Session -日時 : 11. 16(金) 13:00~15:20 -場所 : 2F SRP HALL [Theme① : 九州地域과 韓國의 經濟交流에 대하여] -主題發表 ・日本側 : 石原 進(ISHIHARA Susumu) 九州旅客鐵道(JR九州) 專務取締役 『九州・韓國의 經濟交流에서 본 日韓自由貿易協定에 대하여』 [Theme② : 韓日間の 物流 協力方案에 대하여] -主題發表 ・韓國側 : 李富植(YI Boo Sik) 交通開發研究院 院長 (芮忠烈(YE, Choong-Yeol) 東北亞・物流・經濟研究센터 責任研究員 代讀) 『韓日間 物流 協力方案』	1. RECEPTION -日時 : 11. 15(木) 18:30~20:00 -場所 : HOTEL OKURA 福岡  2. 午餐 懇談會 -日時 : 11. 16(金) 12:00~13:00 -場所 : IF NOUVELLE艾雅  3. OPTION PROGRAM A : 大宰府(Dazaifu) 見学 -日時 : 11. 17(土) 09:30~11:30 B : 立命館아시아太平洋大學 視察 -日時 : 11. 17(土) 08:00~10:00



年度 回次	期 間 場 所	兩 國 參 加 者	主 要 會 議 內 容	其 他 活 動
2002年 第4回	11. 14~16  韓 國 濟州道 (濟州新羅 HOTEL)	1. 韓國側 -趙 健 鎬 체어렌 (CHO Kun Ho) 李 洙 喆 코디네이터 (LEE Soo Chul) 等 20名  2. 日本側 -秋山 富一 체어렌 (AKIYAMA Tomichi) 御巫 清美 코디네이터代行 (MIKANAGI Kiyoyoshi) 等 18名	1. 第 1 Session [Theme : 韓日 經濟現況의 認識과 意見交換] -日時 : 11. 15(金) 09:00~12:00 -場所 : 5F Halla I -主題發表 ・韓國側 : 左承喜(JWA Sung Hee) 韓國經濟研究院 院長 『韓國經濟 概觀 - 最近 經濟動向・展望・政策課題를 中心으로』 ・日本側 : 金子 周平(KANEKO Shuhei) 미즈호綜合研究所(株) 上席理事 『日本經濟 現況과 向後の 課題』  2. 第 2 Session [Theme : 世界經濟의 動向과 兩國의 經濟關係 -- 世界經濟가 韓日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 韓日關係의 安定과 緊密化 --] -日時 : 11. 15(金) 13:20~16:30 -場所 : 5F Halla I -主題發表 ・韓國側 : 丁文建(CHEONG Mun Kun) 三星經濟研究所 經濟研究本部長(專務) 『世界經濟 展望과 韓・日通商 Issue』 ・日本側 : 角田 博(KADOTA Hiroshi) 日本經濟團體連合會 國際協力本部長 『通商政策을 둘러싼 世界的 흐름과 韓日協力 展望』	1. RECEPTION -日時 : 11. 14(木) 19:00~20:30 -場所 : 5F Halla II  2. 午餐 交流會 -日時 : 11. 15(金) 12:10~13:10 -場所 : 5F Halla II  3. OPTION PROGRAM(見學) -日時 : 11. 16(土) 08:30~11:30 -場所 : 住狀館理, 益裁藝術院

年 度 回 次	期 間 場 所	兩 國 參 加 者	主 要 會 議 內 容	其 他 活 動
2003年 第5回	11. 27 ~ 29  日 本 東 京 (Hotel Okura Tokyobay)	1. 韓國側 -李 錫 英 채어렌 (LEE Suk Young) 李 洙 喆 코디네이터 (LEE Soo Chul) 等 17名  2. 日本側 -木 村 伸一 채어렌 (KIMURA Shinichi) 安 武 史 郎 코디네이터 (YASUTAKE Shiro) 等 40名	1. 第 1 Session [Theme : 韓日中小企業提携에 대해] -日時 : 11. 28(金) 09:40 ~ 12:00 -場所 : 2F Crownball Room -主題發表 ・ 日本側 : 高田 伸朗(TAKADA Nobuaki) 野村總合研究所 研究開發센터 上級컨설턴트 『韓日 中小企業交流의 今後の 展開에 대해』 ・ 韓國側 : 許南整(HUH Nam Jung) 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理事 『韓日 兩國 中小企業間 相互補完 事業 推進經過』  2. 第 2 Session [Theme : 韓日産業클러스터(Cluster)計劃 事例-韓日 地方産業提携를 指向하여-] -日時 : 11. 28(金) 13:30 ~ 15:50 -場所 : 2F Crownball Room -主題發表 ・ 日本側 : 井上 裕行(INOUE Hiroyuki) 經濟産業省 産業클러스터計劃推進室 立地環境整備課長 『産業클러스터 計劃에 대하여』 ・ 韓國側 : 洪珍基(HONG Jin Ki) 産業研究院 地域産業Team長 『韓國의 産業클러스터 政策과 韓日 産業協力 方案』	1. RECEPTION -日時 : 11. 27(木) 18:30 ~ 20:00 -場所 : 2F Victoria Room  2. 午餐 懇親會 -日時 : 11. 28(金) 12:00 ~ 13:20 -場所 : 1F 桃花林

年 度 回 次	期 間 場 所	兩 參 加 者	國 者	主 要 會 議 內 容	其 他 活 動
2004年 第6回	11. 18~19  韓 國 慶州市 (HotelHyundai)	1. 韓國側 -李 錫 英 채어멘 (LEE Suk Young) 李 洙 喆 코디네이터 (LEE Soo Chul) 等 53名  2. 日本側 -麻生 泰 채어멘 (ASO Yutaka) 高 梨 圭 介 코디네이터 (TAKANASHI Keisuke) 等 31名	1. 分野別 自由討論 -日時 : 11. 18(木) 16:30~19:00 -場所 : 2F Sapphire -테마 : 韓日FTA推進에 따른 分野別 協力 ・貿易分野 : (진행) 김도형 재명대학교 국제학대학 일본학과 교수 ・機械分野 : (진행) 박양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電氣・電子・IT分野 : (진행) 이감열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2. 全體會議 -日時 : 11. 19(金) 09:10~12:40 -場所 : B1F 컨벤션홀 -테마 : 韓日FTA關聯 ・韓國側 : 정재화 (사)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연구팀장 『韓日FTA의 추진방안과 기업의 대응과제』 ・日本側 : 角田 博(KADOTA Hiroshi) (사)일본경제단체연합회 參與 『韓日FTA-진정한 파트너쉽 구축과 동아시아 자유경제권을 지향하여-』	1. RECEPTION -日時 : 11. 18(목) 19:00~20:30 -場所 : B1F 다이아몬드홀  2. 午餐 懇親會 -日時 : 11. 19(목) 13:00~14:30 -場所 : B1F 토파즈  3. 産業視察 -日時 : 11. 19(목) 15:00~18:30 -場所 : (주)자원메디칼	

年 度 回 次	期 間 場 所	兩 參 加 者	主 要 會 議 內 容	其 他 活 動
2005年 第7回	11. 21~23 日 本 京都市 (京都全日空Hotel)	1. 韓國側 -李 錫 瑛 채어멘 (LEE Suk Young) 李 洙 喆 코디네이터 (LEE Soo Chul) 等 30名  2. 日本側 -麻生 泰 채어멘 (ASO Yutaka) 高 梨 圭 介 코디네이터 (TAKANASHI Keisuke) 等 33名	1. 第 1 Session (議題：韓日企業의 競爭力과 連帶深化) - 主題發表 <日本側> ・ 主 題：『도레이그룹의 韓國에서의 事業運營에 대해』 (假題) ・ 發表者：森野 仁(MORINO Hitoshi) 東レ(株) 取締役 <韓國側> ・ 主 題：『韓日企業의 連携現況 및 向後展望』 ・ 發表者：金達雄(KIM Dal Woong) LG電子Japan(株) 代表取締役 社長 - 自由討論  2. 第 2 Session (議題：아시아地域經濟連帶의 進展과 韓日關係) - 主題發表 <日本側> ・ 主 題：『FTA時代의 課題－原產地 規則과 企業－』 ・ 發表者：谷口正樹(TANIGUCHI Masaki) 日本機械輸出組合 通商·投資그룹 리더 <韓國側> ・ 主 題：『韓日經濟와 文化·人的交流』 ・ 發表者：奇秉泰(KEE Byung Tae) 韓國JMAC(株) 經營顧問 - 自由討論	1. RECEPTION (日韓經濟協會 主催) -日時：11. 21(월) 19:00~20:30 -場所：2F 平安(헤이안)  2. 午餐懇親會 (日韓經濟協會 主催) -日時：11. 22(화) 12:00~13:00 -場所：2F 嵯峨(사가)  3. 産業施設見學 -日時：11. 22(화) 14:30~17:00 -場所：阪奈(게이한나)學研都市 內 施設見學 □ 오펜(株) 京阪奈(게이한나)이 노베이션센터 □(株)國際電氣通信基礎技術研究所  4. 옴션 프로그램 -日時：11. 23(수) 09:00~13:30 -場所：金閣寺(간가쿠지)/龍安寺 (표오안지)/二條城(니조성)

年 度 回 次	期 間 場 所	兩 參 加 國 者	主 要 會 議 內 容	其 他 活 動
2006年 第8回	11. 6~7 韓 國 서 울 (Coex 컨퍼런스센터)	1. 韓國側 -柳 昌 茂 채어맨 (RYU Chang Moo) 李 洙 喆 코디네이터 (LEE Soo Chul) 等 36名  2. 日本側 -麻生 泰 채어맨 (ASO Yutaka) 清水 敏一郎 코디네이터 (SHIMIZU Koichiro) 等 31名	1. 第 1 Session (議題: 한일미래 공동의 과제: 저출산시대의 도래와 기업경영) - 主題發表 ・ 崔淑姬(CHOI Sook Hee)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도래와 기업의 대응」 ・ 原田 泰(HARADA Yutaka) (株)大和總研 首席이코노미스트 「인구감소사회와 기업경영」 ・ 岩切 貴乃(IWAKIRI Takano) (株)東芝 및 건인생&캐리어推進室長 「남녀공동참여를 위한 東芝의 대응」 - 自由討論 및 質疑應答  2. 第 2 Session (議題: 지금의 한일양국: 한국의 투자환경 현황과 한일합작사례) - 主題發表 ・ 吳廳天(OH Eung Chun) KOTRA 주력산업유치TEAM장 「한국, 성공의 열쇠」 ・ 安城樂(AHN Sung Lak) 삼성물산(주) 전자재료사업부 과장 「삼성물산 한일합작사례 -한국셀라글라스-」 ・ 帶刀 楯夫(OBINATA Tateo) 韓國橫河電機(株) 會長 「합병에서 경영투명화로의 변혁」 - 사원,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Business Mind - - 自由討論 및 質疑應答  3. 第 3 Session (議題: 향후 한일산업무역협회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 提案 ・ 清水 敏一郎(SHIMIZU Koichiro) (주)호텔오쿠라 대표취체역 부사장 「한일산업무역회의 개선 취지 및 문제점」 ・ 麻生 泰(ASO Yutaka) 麻生라파루시멘트(주) 社長 「일본측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 柳昌茂(RYU Chang Moo) (사)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한국측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 설명」	1. 晚餐交流會 (兩國 共同主催) -日時: 11. 6(월) 18:30~20:30 -場所: Grand Inter Continental Hotel B1 Rose Room  2. 午餐懇談會 (韓日經濟協會 主催) -日時: 11. 7(日) 12:30~13:30 -場所: COEX Convention Center 3F # 304

■ (社)韓日經濟協會

- 住所：135-821 SEOUL特別市 江南區 論峴2洞 112-15番地 4F
- 電話：(02) 3014-9888, 9866    ○ FAX：(02) 3014-9899
- Home page：http://www.kje.or.kr
- E-mail：jhkim@kjc.or.kr

■ (社)韓國貿易協會

- 住所：135-729 SEOUL特別市 江南區 三成洞  
무역센터 Trade Tower 4604號
- 電話：(02) 6000-5347    ○ FAX：(02) 6000-5300
- Home page：http://www.kita.net
- E-mail：japan@kotis.net